



역사를 품은 예술... 26명의 다른 울림

도립미술관 두 가지 전시
강요배·서용선 역사화 34점
작가들 다른 시각·표현 방식
4·3 미술 네트워크 특별전도
민중운동 다른 24명의 작가



10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 '역사화의 새 지평-시대를 보다' 전 개막식 후 진행된 전시투어에서 강요배(사진 왼쪽)·서용선 작가가 참석자들에게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민중미술 1세대'로 불리는 강요배 화백은 소설가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삽화와 '제주민중항쟁사' 연작 등으로 4·3이라는 고향의 아픔을 그렸다. 서용선 화백은 한국 역사화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왔다. 두 작가는 서양화가이자 역사와 호흡하는 작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역사를 해석하고 서술하는 방식은 다르다. 강요배 화백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시간을 그렸고, 서용선 화백은 역사 속 사건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성을 탐구한다. 4·3이라는 아픈 기억을 새겨야 할 제주의 봄, 제주도립미술관이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두 가지 전시를 마련했다. '역사화의 새 지평-시대를 보다' 전과 '4·3미술 네트워크-빛과 숨의 연대' 특별전이다. 이 두 전시는 '역사를 품은 예술'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지만

작가들마다 각기 다른 시각과 표현의 방식으로 새로운 울림을 전한다. 1층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역사화의 새 지평-시대를 보다' 전은 한국 역사화를 그린 강요배·서용선 작가가 참여한다. 이 전시에서는 '수풍교향', '난정곡수', '산곡' 등 강요배 작가의 작품 13점과 '계유년', '동학-승천' 등 서용선 작가의 작품 21점 등 모두 34점을 선보인다. 10일 열린 개막식에서 강요배 작가는 "거대한 나무 같은 구멍이 나 이태를 손에 넣고 웅장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과거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포되고 내장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속에서 시간적인 요소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용선 작가도 "역사적인 주제를 갖고 그 시각을 예술로 표현한 작가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그러한 장르가 발달되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이번 전시회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종후 도립미술관장은 "이들의 작품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삶의 본질을 확보해 새로운 역사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며 "예술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또 다른 전시인 2층 기획전실에서 마련된 특별전 '4·3미술 네트워크-빛과 숨의 연대'는 제주4·3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에 이어져 온 민중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도내외 2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전시에는 제주 4·3사건, 동학농민운동, 대구 10월 항쟁, 광주 5·18민주화운동,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민중운동을 예술로 재조명한 작품 58점이 전시된다. 두 전시는 이달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어진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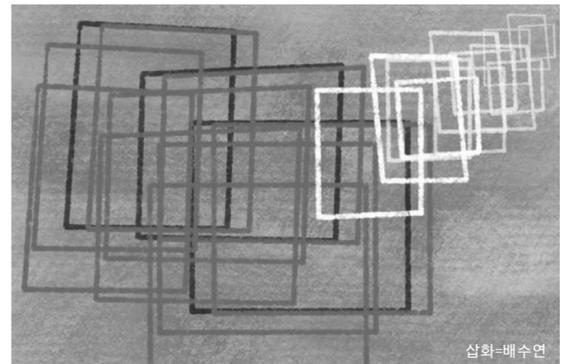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107)

거리에서

김사이

문을 열고 나가니
안이다
그 문을 열고 나가니
다시 안이다
끊임없이 문을 열었으나
언제나 안이다
언제나 내게로 돌아온다
문을 열고 나가니
내가 있다
내게서 나누어지는 물음들
나는 문이다
나를 열고 나가니
남떠러지다
달을 듯 말 듯한 남떠러지들
넋 나간 슬픔처럼 떠다닌다
나는 나를 잠그고
내가 쓴 물음들을 주워 먹는다



삼화-배수연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간다. 하나의 물음을 향하여 그녀는 졸곧 문을 열고 있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출을 밝으며 누군가 자신의 외출 끝에서 걸어와 주기를, 맞아주기를 바라며 인간됨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출 위에 발을 올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나갈수록 외출 위에는 그녀 자신만이 흐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발로만 밟을 수 있는 외출이었다. 그녀도 알게 된 사실-세상 문을 열고 나가는 여정이란 알 수 없고 감각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외출 타기라는 것. 인생이라는 외출에 올라 언어나라는 장대로 균형을 유지한 채 결국 자신의 남떠러지 위를 건너고 타인의 남떠러지와 남떠러지 사이를 걸어야 하는 그녀가 된다는 것. 외출 위에서 떠다니는 나 또한 누군가의 외출에 가닿기를 기도하지만, 안으로 잠긴 물음들을 계속해서 깨우는 것 말고는 나 역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삶을 뒤흔드는 세상의 거리에서. <시인>

한강 소설 속 제주어... 제주문학관 특별강연

'제주말 작은사전' 저자 초청
제주4·3을 주제로 한 소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속 제주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학관은 15일 오후 2시 문학관 1층 북카페에서 '제주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세상-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 속 제주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현재 제주문학관에서 진행 중인 '한강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도서특별전과 연계된 '한강문학 깊이 읽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제

주말 작은사전'의 저자 김학준 씨를 초청해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제주어의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학관 측은 "4·3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 제주어는 방언을 넘어 제주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는 언어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전했다. 강연은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11일부터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신청 또는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누리집(https://www.jeu.go.kr) 교육·프로그램 안내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아동학대 다른 '무간도'

이달 12-15일 제주 공연

아동학대를 다룬 연극 '무간도'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제주 예술단체인 '예술공간 오이'의 프로그램 '오이 수놓다 프로젝트'의 두 번째 초청 연극 공연이다. 창단 14주년을 맞은 극단 '집안싸움'이 2020년부터 선보인 심리 스릴극인 이 작품을 과거 아동학대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을 직설적으로 담아내며 인간성의 현주소를 다룬다. 광두환, 황보권 등이 출연하며 김환일이 글을 쓰고 이준석이 연출



'무간도'에 출연한 광두환(왼쪽), 황보권

을 맡았다. 이준석 극단 '집안싸움' 대표는 "인간의 모순과 갈등 앞에 무너지는 약한 인간성을 보며 삶의 의지를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연은 제주시 연복로에 있는 '예술공간 오이'에서 수·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에 진행된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박소정기자

감귤 신제품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하라베니(궁천번이),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로도번)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하례조생

특징
조생온주계통이며
궁천조생보다 일주일 빨리 수확함.
당도는 궁천보다 뛰어남.

그 외 모든 품종 보유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

감귤묘목

고품질 고수의 그린향(유라실생)!!
대규모 하우스 단지 견학환영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오하라베니 4년생
▲하귤 5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 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 · 최고경적 · 간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 품종 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 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나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근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